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어머니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유혜경* 김미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어머니 경험 속에서 그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고통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변화와 회복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녀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어머니 세 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자료는 전 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시간성, 장소, 사회성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모델을 활용하여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며 간접·직접 외상을 경험하고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 이전과 해결 과정,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 찾기', '그래도 성장으로 나아감', '버림목이 된 지지자원들', '치유와 성장의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인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 성찰과 인식의 변화를 이루며 '주요 피해자'이자 동시에 '회복의 주체'로서 성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자 어머니들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과 학교폭력 피해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전문가 윤리감독 및 신앙 기반 상담·회복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내러티브 탐구, 지지자원, 외상 후 성장,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마음다리심리상담센터 소장, 제1저자

** 서울한영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이 연구는 서울한영대학교 유혜경의 박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지도교수: 김미경)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매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2023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으며(중앙일보, 2024), 2022년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 드라마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이 이슈화되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자녀를 잃거나 자녀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 또한 고통을 겪게 한다. 정현주(2014)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 부모들은 우울과 불안, 분노와 속상함 등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로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즉,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자녀와 함께 고통당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의 전체 과정을 공동으로 견뎌내야 하는 '동반 회복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2024년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자 중 98.2%가 우울과 불안을, 90.8%는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자의 75.2%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도 73.4%였다. 또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63.3%,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 경험은 78%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가 가족 관계 및 보호자의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이후 보호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라는 응답이 44.4%였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며 치료를 시도하다가 극심한 심리적 고통으로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는 등, 피해 학생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있다(조귀정, 2015).

이에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전의 삶의 모습과 학교폭력 피해 이후 학교폭력 피해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 경험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찾아가는 삶의 의미와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생 중심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학생 중심 연구 안에 피해 학생의 부모 경험은 간접적 또는 보조적 요소로만 다루어져 그 수와 내용이 부족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존재하나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한 연구들(조귀정, 2015; 정윤경, 김수경, 2014; 방기연, 2014)은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충격, 부적응,

학교와 제도의 불신,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좌절과 이후의 회복 등 경험을 보고하였다. 홍지영·유정이(2013)는 CQR을 적용하여 피해학생 부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 미흡한 대응 체계, 가해자 부모와의 갈등과 필요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공통 주제를 범주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부모의 삶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또한 기독교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 학교폭력의 예방과 기독교 상담(강경미, 2011)과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와 기독교적 대안(유재덕,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의 필요성 연구(이정관, 2017)에서는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예방에 관한 기독교적인 내용과 부모 역할을 다루고 있지만 피해자 부모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회복의 의미를 깊이 있게 보고 재해석하는 데는 질적연구 중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생생한 피해자 어머니의 경험을 내러티브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어머니에게 필요한 다양한 도움과 회복지원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담론, 그 안에서 구성되는 맥락에 반응하며 지속해서 변화한다(Savickas, 2012).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회복 과정은 매우 개인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이 있다. 질적연구는 이러한 내면의 경험과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어 본 주제를 이해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2023년 푸른나무재단의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극복한 학생들 가운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서가 1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24년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을 목격했을 때 피해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선생님의 도움'이 28.4%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보호자의 도움'이 23.3%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교육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은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호소했을 때 ‘바보’, ‘역시 못한 놈’ 등 부정적인 언어로 반응할 경우, 이는 자녀에게 심리적 및 이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문용선, 2018). 반면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ors-Burrow et al., 2009). Luthar, Cicchetti & Becher(2000)는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이들의 우울에 어머니의 지지가 안정적으로 보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외상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에 물질적 보상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인 법적 책임은 보호자가 지게 된다(서정기, 2012). 학교폭력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심리·정서적 고통과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즉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Mishna, 2004; Hale, Fox & Murray, 2017).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는 정신과적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부모의 정신과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장혁진, 곽영숙, 2014)고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경험하는 사건 충격의 정도는 부모가 경험하는 사건 충격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해 학생의 부모 중 상당수가 우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부모 역시 PTSD 유사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장혁진, 곽영숙, 2014). 그런데도 학교폭력 연구에서 부모의 경험은 종종 간과됐으며 부모는 괴롭힘 문헌에서 사라진 목소리 또는 2차 피해자로 언급되기도 하였다(Sawyer et al., 2011; Sullivan, Sullivan & Cleary, 2003).

피해 학생 부모들은 자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속적인 당혹감, 분노, 무력감을 호소했으며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경험하였다(정윤경, 김수경, 2014; Brown, Aalsma & Ott, 2013, Hale, Fox & Murray, 2017). 부모들의 분노와 충격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며 분노, 불안, 우울 등의 감정과 함께 심리적 상처로 이어진다(정현주, 2014). 어머니들이 가지는 자책감은 배우자와의 갈등, 특히 양육 방식에 대한 심각한 마찰로 발전하기도 하였다(조귀정, 2015). 즉 학교폭력은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부부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arcourt,

Green & Bowden., 2015).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조차 왜곡되는 현실로 인해 고통과 분노는 더욱 커지게 된다(서정기, 2011; 조귀정, 2015). 부모 중 상당수가 학교 당국과의 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교사나 관리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증폭된다(Hale, Fox & Murray, 201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피해 학생 부모는 담임교사나 가해 학생 측을 대상으로 자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홍지영, 유정이, 2013).

2) 외상 후 성장

외상 사건은 그 당시에는 삶의 지축을 흔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비일상적이지만 미래에 경험할 또 다른 도전 거리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미경, 2018). 이러한 변화는 위협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손상된 신념을 회복하기 위해 외상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사건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루어진다(Armour, 2003). 즉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다(Armour, 2003). 트라우마 경험이 개인에게 있어서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트라우마 사건으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기능 수준을 넘어선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는데(Linley & Joseph, 2004; Park & Helgeson, 2006; Schaefer & Moos, 1992), Calhoun과 Tedeschi(2004)는 이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정의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함께 겪어 내면서 나아가는 것이다(Joseph & Regal, 2012). 외상 후 성장은 외상 사건과의 고군분투 끝에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으로 정의된다(Maercker & Zoellner, 2004).

성장 경험에는 개인적 힘, 타인과의 관계, 삶의 새로운 가능성, 삶에 대한 감사, 영성의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되며, 이는 포괄적으로 자기 인식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철학적·영적 인식의 변화로 구분된다(Calhoun & Tedeschi, 2015). 자기 지각의 변화란 극복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강점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는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 이후 삶의 가치와 바람직성을 추구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잠재된 강점을 인식하게 된다(Bonanno et al., 2004). 또한 일상 경험에서 감사의 마음이 증대하고, 외상 후 인생관의 변화로 목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며, 종교적·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과 대인관계의 친밀성이 물질적 성취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기도 한다(Calhoun & Tedeschi, 1996).

학교폭력은 ‘안 겪었으면 좋았을 일’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가 후유증세를 보이고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자녀가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고 안정감을 얻는다(조귀정, 반신환, 2014)고 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는 학교폭력이라는 고통을 겪은 자녀들이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3) 기독교적 외상 후 성장

죄로 인한 타락으로 외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까지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McMinn, 2011).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대인관계에 의한 외상이 늘 존재했다. 외상은 한 개인의 실존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훼손시킨다(Tracy, 2009). 성경은 인간의 궁극적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Tripp, 2016). 이 외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고통받는 자들의 외상은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짐의 장소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Voskamp, 2017). 또 외상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종교적 활동을 한다(Meisenhelder & Marcum, 2009). 부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으로 높은 스트레스 증상들과 심각한 우울증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Bradley, Schwartz & Kaslow, 2005; 685; Watlington & Murphy, 2006; Witvliet et al., 2004).

인간은 예기치 못한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질 때 절대자를 의식하며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게 된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몸과 마음, 그리고 영성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김미경, 2011). 시편의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시 113:3-4)라고 말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을 피하거나 억압하는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즉 영적인 여정의 과

정 중에서 신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잘 다루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조인효, 2014).

중세 기독교 영성가 성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한 여정으로 여겼다. 그는 고난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강력한 합일을 경험하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다(조인효, 2014). 이는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종교적인 승화와 추구 양식을 보인다(최שמ미·안창일, 2007; Calhoun et al., 2000)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함께 견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김미경, 2011).

2.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일종의 삶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 2016)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경험 이야기를 현상으로 탐구하여 그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삼차원 공간인 시간, 장소, 사회로 개인적·사회적인 상호작용,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 그리고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상황을 말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데 경험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차원인 '사회성'은 개인의 내적 조건과 사회적인 외적 환경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험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차원인 '장소'는 탐구나 사건이 일어나는 특성의 구체적이면서 물리적인 장소나 일련의 장소(Clandinin & Connelly, 2006)를 의미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하기라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재구성 및 자아 성찰 과정을 중요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김필성, 2015). 이에 인간이 경험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홍영숙, 2015)이라고 하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구성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특별한 의미들과 자아 인식의 깊은 모습이 있다. 이를 이해하는

데는 양적인 연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내러티브의 탐구방법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학교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경험한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2) 연구절차

(1) 현장으로 들어가기: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참여자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 3인이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하고 회복 과정에 있는 세 명의 어머니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가명	연령	직업	가족사항	피해 기간	피해유형	거주 지역	종교
1	하늘 어머니	40대 중반	자영업	부부(3인가족) 첫째딸(고3) 피해자녀	고1~고2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충청북도 소도시	무교
2	바람 어머니	40대 초반	강사	부부(4인가족) 첫째 아들(고1) 피해자녀 둘째 딸(초6)	중3	신체폭력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경기도 소도시	기독교
3	별 어머니	50대 후반	상담사	부부(4인가족) 첫째 딸(고3) 둘째 딸(고2) 피해자녀	고1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경기도 소도시	기독교

(2)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연구참여자는 연구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 전문기관과 동료 상담자의 추천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3명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연구참여자별로 5회씩 개별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1회기에 2시간 정도, 2~5회기는 30분~1시간정도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SNS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는 연구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비밀유지와 연구 참여의 자발성에 대해 고지하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면접 장소는 참여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3)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면담 자료를 주요 현장 텍스트로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연

구자가 작성한 메모, SNS상의 기록, 관련 기사 내용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사된 면담 자료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나 SNS를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하였다. 전사본은 연구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사실 관계를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참여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참여자의 경험이 연구자의 해석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4)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이라는 전체 맥락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들을 찾고자 하였다. 경험의 시간성과 장소, 그리고 관련된 인물들을 참고하여 경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공간적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참여자가 자녀의 학교폭력을 경험하기 전의 삶,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후 현재의 삶을 살펴보면서, 각 시기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전체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일관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 집단 내 동료와 선배 박사에게 분석 과정과 주제 도출 결과를 공유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5) 연구텍스트 작성하기

연구자는 최종 텍스트의 완성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필요시 수정 또는 삭제 여부를 상의하면서 완성해 나갔다. 최종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의 독자가 누구인지, 이 연구가 가지는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을 질문하는(Clandinin, 2015) 과정을 거쳤다.

3.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경험 이야기

1) 하늘이 어머니의 이야기

(1) 칭찬받던 아이, 그러나 무너진 신뢰

하늘이의 어머니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럴 리 없다.”, “선생님들께서도 사정이 있을거야.”라고 생각하며 교사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아이가 워낙에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아이여 가지고 네 그냥 학창 시절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불신은 전혀 없었어요.

(2) 삭일 수 없는 고통

보건교사가 하늘이의 수많은 자해를 보고 그동안 하늘이에게 있었던 학교폭력이 알려지게 되었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가해자에게 하늘이 어머니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 가해자는 학교에서 자신은 사과하려 했으나 하늘이가 전화 받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친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교육청이 주관한 학교폭력심의회위원회에 참석한 가해자의 아버지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방학 동안에는 애들이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속적이냐?”, “우리 애만 잘못했겠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개는 우리 애 힘담 안 했겠냐.”라는 말로 하늘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아갔다. 맞학폭 신고 결과 하늘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다. 하늘이 어머니는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유튜브와 블로그 검색, 관련 기관 검색을 하며 도움을 받았다. 행정소송 진행 때 좋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하늘이 어머니는 행정소송으로 조작된 거짓을 밝혀 가해 처분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늘이가 학교폭력한 것이 없음이라는 것을 밝혀 3호 처분은 조치 없음이 되게 했어요. 누명을 벗고 바로 잡는데 까자 걸린 시간은 무려 5개월이나 걸렸고 하늘이는 큰 상처로 수개월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심각한 피해를 본 거죠.

(3) 무너지지 않기 위한 버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하늘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에 병원 진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였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통받는 것을 목격한 어머니는 깊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하늘이 어머니는 자신이 무너지면 하늘이가 더 큰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어 견디고 자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행정심판이 끝나자, 하늘이 어머니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후타가 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줄을 잘 몰랐고 어떻게든지 애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집중도 때문에 아프지만 그게 좀 미세하게 느껴졌다면 내가 아픈데 아픈 줄 모르고 우울감 무기력함 그때도 무기력함이 있었지만 <중략> 감정이 안 느껴진다는 거 <중략> 혼자 있을 때 좀 멍하게 있다가거나 갑자기 기분이 다운된다.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을 못 했어요. 계속 유튜브를 틀어 놓는다든지 <중략> 일단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심장이 쿵쿵 거리고 막 그래요. <중략> 또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 마음이 아프면 면역이 떨어진다는 걸 저도 겪었는데 작년에 감기나 비염 이런 게 와가지고 약을 엄청 먹었어요. 안 그랬었는데 그리고 체력이 바닥이 나고 뭘 해도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4) 사무치는 감사의 동아줄

하늘이를 믿어주고 학폭 신고를 하라는 상담교사의 말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하늘이 어머니가 움직이게 된 동기가 되었다.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학교폭력 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고통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던 하늘이 어머니는 학교폭력가족협의회의 도움으로 해맑음 대안학교 입소하였다. 그곳에서 자녀가 인정받고 배려받으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늘이가 입소한 시간은 자녀에게 집중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해맑음 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족 모두 배려받는 경험을 통해 어머니와 가족들은 회복이 일어났다. 학교폭력 가족협의회에서 남편과 하늘이 어머니는 무료로 진행되는 10회기 상담의 도움도 받았다.

내가 버티려면 내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같이 상담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내 아이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아이의 마음 아프잖아요. 트라우마고 심리적인 거고 그게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커요. 나는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많이 아픈데 내 아이지만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라 그래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이해준 소장과의 상담 전화 중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름을 부르지 말고 별레라고 불러라.” “이제부터는 무게를 좀 낮추세요.”라는 말을 듣고 적용하면서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법적 조언을 위해 인터넷 검색하던 중 알게 된 푸른나무재단의 SOS 상담지원팀과의 만남 속에서 받은 조언은 하늘이 어머니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심리상담을 전공한 이웃은 언제든 전화하라고 하면서 하늘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 이웃은 가해자를 향해 욕하지 못하는 하늘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욕해주었다. 대신 화내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도 하늘이 어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5)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

하늘이는 해맑음에서 하는 가족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가운데서 하늘이도 단단해졌고, 어머니도 자녀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힘을 낼 수 있었다. 하늘이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편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어려워했던 아버지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나가서 뭔가 이렇게 활동할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뭔가를 잘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이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봐요.

하늘이가 다니는 특목고 특성상 반 교체가 어렵고 전학의 경우 학생의 진로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은 가해자에게 16점 전학 및 퇴학의 점수에서 두 단계 낮추어서 처분하였다. 하늘이는 가해자와 계속 같은 반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일반계 학교로 전학하였다. 전학 후 학교 적응이 힘들어 우는 하늘이를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하늘이 등하교를 전담하면서 하늘이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한동안은 <중략> 정기적으로 좀 상담을 받게 할 생각이예요. 좀 그래서 좀 정 말 단단한 어른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저도 사람에 대한

저기 제가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런 트라우마가 쉽게
없어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어머니는 학교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족의 변화와 하늘이의 성장을 보
았다. 자녀에게 집중하지만, 자신의 생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녀에게도 솔
직하게 말하고 자신을 돌보기도 하고 있다.

내 생활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어, 얼마 안 남았지, 막 그러면서 아
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음,
다큐멘터리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좀 즐거운 거 많이 불러고 하고.
옛날 그리고 좀 일상으로 좀 제가 하는 일을 다시 좀 찾고 싶어요.

2) 바람이 어머니의 이야기

(1) 서툰 엄마의 미안함

바람이 어머니에게 학교는 눈을 뜨면 등교하는 일상적인 곳, 그냥 가는 곳으로 생각
하고 학교에 대한 편견은 없었다. 주말부부이면서 맞벌이인 바람이 어머니는 바쁜 일
상을 사느라 아이들에게 칭찬과 따뜻함을 많이 주지 못했다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람이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과 자녀에 대한 걱정과는 달리 바람이는 자기 일
을 잘 해내고 있었다. 학교가 멀지만, 어머니의 도움없이 등학교도 잘하였다. 바람이는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에 가는 즐거움 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할 수
있다는 점이였다. 바람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은 아니지만, 활동적인 면에
서는 움직이고 나서서 하는 것을 잘하는 아이였다. 그랬던 바람이가 학교폭력 사건 이
후 위축되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좀 약간 모든 아이들이랑...조금 위축되는 느
낌, 학교,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말을 잘 많이 안 하
는 것 같더라고요.

(2) 불안의 한복판

바람이는 집에 있는 동안에도 전화벨이 울리면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며 안절부절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바람이가 “엄마, 내가 지

금 여기 나가기 싫는데 애가 자꾸만 나를 수시로 불러들여. 그리고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나 너무 나가기 싫는데, 엄마.”라고 하였다. 바람이 어머니는 바람이의 고통을 학교에 알리고 싶었으나 엄마가 먼저 이야기하면 자녀가 수치를 당하게 될지 걱정되어 자녀를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저는 이제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말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이가 그냥 스스로 좀 해결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좀 기다려 봤었죠.

바람이 어머니는 바람이가 잘 때 바람이 핸드폰을 보았다. 단톡 대화방은 ‘바람이 쏙 주는(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드는) 방’ ‘쪽 주는 방’이었다. 바람이는 단톡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바람이가 폭행당하는 것을 교과교사가 본 후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에게 “바람이가 지 엄마한테 끈질러가지고 학교폭력 신고했다.”라면서 바람이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였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한 행동이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람이 어머니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고 부모가 알게 되면 가해자도 반성하고 가해자의 부모도 미안해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바람이 사건에 학교폭력 위원 중 한 명인 경찰관이 “왜 이런 상황인데 고소는 안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경찰에 고소하였다.

우리 애가 만만하니까 부모도 만만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도 이제 엄청 세다는 걸 이제 세계 보여준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좀 겁을 먹는 <중략> (가해자가) 이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애 기하는데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담사를 연결해 주었다. 상담사는 보고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평소에도 자신에 대해 표현이 적던 바람이는 학교폭력 사건 이후 만난 낯선 상담사와 눈도 잘 못 마주치면서 불안함으로 대답을 잘하지 않았다. 상담사는 바람이를 학교폭력의 상처받은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문제점을 찾고 바람이를 나무라면서 이야기하였다. 상담사의 “자폐 같아요.” “정신병원에 데려가 보세요.”라는 말과 행동은 바람이와 바람이 어머니에게 또 다른 가해가 되었다.

바람이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제대로 마음의 문을, 누군가한테 먼저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3) 공포와 싸우느라 방치된 몸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어머니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바람이 아버지는 “왜 소극적이냐?”라고 했다. 바람이 어머니는 남편과 바람이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 과정에서 의견 충돌로도 힘들었다. 바람이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바람이 어머니 몸의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인과 쪽으로 좀 많이 아팠어요. <중략> 자궁내막증도 되게 심해졌고, 난소의 혹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난소의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개가 막 뒤틀리듯이 아파가지고, 이제 막 자 잠도 잘 못 자고 이게 이거를 막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중략> 호르몬 약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 약이 또 이제 부작용이 돼가지고 저한테 맞지 않아 가지고..

(4) 마지막 기댈 언덕

2학기에 새로 바뀐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사건 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바람이를 지켜봐 주었고, 바람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는 자주 전화해서 근황을 물어봐 주었다. 상담사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던 바람이 어머니는 상담이 싫었다. 하지만 남편의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해. 상담을 계속 받으면 좋겠어.”라는 말에 검색을 통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바람이도 어머니도 상담받으면서 자신을 보게 되었다.

바람이 어머니는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쏟아내었다.

제일 이제 도움이 됐던 거는 기도밖에 없었죠.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제가 처음 왔던 거는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계속 기도만 했었거든요. 맨날 며칠 잠을 다 못 자고 계속 기도만 했었거든요.

(5) 천천히 단단해지는 중

학교폭력 사건 이후 바람이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바람이 어머니는 바람이

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이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다. 바람이 아버지도 바람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면서 바람이와 축구장에 가거나 축구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누려고 하고 있다. 바람이도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 주는 자신의 편인 부모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해결해줘서 개가 더 이상 이제 나 옆에 있지 않는다는 거를 좀 알고 개가 없으니까 학교 다닐 맛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람이 어머니는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자신과 마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 아집으로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가 정말 정말 낮은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바람이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과 혼란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여정이라 믿고 있다. 원망의 시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람이 어머니는 자기 아픔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확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일어나지도 일어나야 하지 않을 일들을 이렇게 뼈아픈 고통을 주셨는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근데 분명히 또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원망 아닌 원망들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의 상처가 좀 다른 사람한테는 좀 간증이 되어서 좀 좀 그래도 교회 다닌 엄마 그리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엄마는 이렇게 대처를 한다.

3) 별이 어머니의 이야기

(1) 믿었던 곳이 가장 아플 때

별이의 학교폭력 사건 이전에 별이 어머니는 학생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학교의 규모가 작아 학생과 교사 모두 여유와 낭만이 있다고 느꼈고, 별이 어머니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별이가 다니는 학교를 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특성은 사건 발생 이후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학교폭력 사건은 전체 학생들에게 빠르게 퍼졌고 피해자인 별이의 신원이 쉽게 드러났다. 모든 학생이 사건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별이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규모 학교라는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의 내용 또한 교사들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교사의 성급한 증재는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별이를 더욱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선생님이 소식을 알고 나니 “애가 100% 신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이 시작된 거예요. 지네들끼리 계속 수근거리고 그리고 여기 가까이 우리 애와 다른 반인데도 와서 우리 애 앉아 있는 자리 근거리에 앉아서 “야, 재 누가 따 먹으러 온대. 오늘”

(2) 덮혀진 진실 파헤치기

피해자였던 별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는 결론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별이 어머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청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제척대상의 합리성을 위해 관할 구역 내 사람이 학교폭력 심의위원이 되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위원이 지인이면 편파적인 결정이 날 수 있다. 별이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위원회에는 가해 학생 가족과 개인적 관계 밀접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학폭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를 이렇게 배경을 조사하다 보면 다 지인인 거예요. 학폭 위원들도 가해자들하고 다 학연이든 지연이든 다 얽힌 거예요. 심지어 우리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남자아이는 가족보다 친한 사람이 그 위원 중에 있었대요. 그 엄마(가해자 엄마)가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 요원들이 만류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별이 애가 너무 억울하다. 근데 전원 합의. 만장일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찬성한 거고 전원 합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토론을 거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우리 애 가해 처분을 내린 거는 전원 합의였더라고요. 근데 전원 합의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더 쏠린 거죠.

같은 내용이었는데 법을 모르는 어머니가 적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무시되었는데, 전문법무사가 법 조항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쓴 서류는 영향력이 있었다. 행정소송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린 별이의 가해 처분은 위법인 것으로 나왔다. 별이 어머니가 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으로 가해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는 말에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현실에 대한 화남이 있었다.

그나마 그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겠다 싶어서, 우리 애가 가해 처분받은 건 지웠죠. <중략> 신고한 사건에서 이렇게 된 건 위법이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호소한 것만으로 애가 가해자가 된 거 진짜 위법이다. 취소해라 취소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나마라도 억울함이라도 풀어주고 싶었어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었기에 별이는 가해자들에게 사과받지 못했다.

(3) 엄마의 소리없는 무너짐

학교폭력 사건은 별이와 별이의 어머니 모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별이는 교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수업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조퇴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이후 별이네 가족은 거주지역 상담소도 믿을 수 없어서 별이는 다른 지역의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있다.

자녀의 일이 더 가슴 저리고 힘들어서 자녀를 위해 ‘괜찮다.’ 하고 견뎠지만, 별이 어머니의 몸은 해결 과정의 스트레스 속에서 체중이 많이 늘어났고 몸이 안 좋아졌다. 갑상선 수치가 올라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임파선이 안 좋아지면서 혹처럼 멍치는 것들이 나타났다. 피부를 누르면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마음이 몸을 힘들게 만들었다. 어머니라서 의식적으로 견뎌내려고 했지만, 몸은 괜찮지 않았다.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갑상선 수치도 다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고 임파선으로 몸이 다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일이 나를 많이 파괴했다는 걸 알았어요. <중략> 아이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무섭구나!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괜찮다 하고 힘내고 씩씩해도 내 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구나를 알았어요. <중략> 나를 망가뜨렸구나.

(4) 소중한 동행

학교폭력 사건 해결 과정의 진흙탕에서 별이 어머니에게 숨 쉴 공간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위클래스 상담교사의 따뜻한 공감은 그나마 학교에서 별이와 어머니에게 따뜻한 바람 같은 존재가 되었다. 친한 지인들은 별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 또, 힘들어하는 별이에게 힘내라고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기도 하였다. 별이를 상담하는 상담사는 부모 면담 시간에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상담하면서 내담자의 어머니들에게 했던 말을 자신에게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사의 말로 별이 어머니는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한테 해줬던 말들을. 해줬던 말들을 내가 나한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긴 했어요. <중략>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도 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음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저한테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전도사는 별이 어머니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할 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힘을 주었다. 별이 어머니는 교회 전도사의 위로와 학교폭력 사건 진행 잘

될 때 축하의 말로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기도는 별이 어머니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별이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들을 미워하던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저를 혼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우선적으로는 못한다고 우선적으로는 보통 제 마음을 마음이 먼저 편안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개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풀고 싶지 않다. 착한 척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많이 풀려서 그래 개들도 진짜 자기 부모들한테 소중한 애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리고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았나 보다 <중략> 전처럼 저도 막 개들이 밍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힘들었던 별이 어머니는 교회에서 열린 인카운터 프로그램으로 회복이 일어났다. 그 시간을 통해 별이 어머니는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였고,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별이 어머니에게 안도감을 주었으며 유연한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폭력 사건의 긴 과정에서 외로워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버텨내려고 애썼던 마음이 해소되었다. 별이 어머니의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응어리가 풀리면서, 애씀의 노력이 아닌 편안하게 타인 수용과 자기수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혼자가 아닌 나 혼자가 아닌데 여기서도 근데 거기에 안도가 돼서 진짜 평평 울었어. 그 안도감에 혼자가 아니네. <중략> 그제 성령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 관련된 학폭이나 그런 게 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그 후로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은 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좀 유연해지고, 어떻게 내가 억울하지 않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신

양적인 과정들이 저를 지탱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힘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픈 것도 좀 괜찮아지고 힘도 나고 <중략> 전에 생각으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게 원동력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애쓰이라 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면 지금 애쓰지 않는 것 같아요.

(5) 비 온 뒤 굳어가는 땅

학교폭력 사건 이후 별이의 어머니에게는 “소중하다”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새겨졌다. 별이는 전학을 하였으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별이 어머니는 출근 중에도 자녀에 대한 걱정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힘닿는 데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힘이 닿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 너를 어디서든 지켜주실 거야.” 별이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은 별이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었다.

엄마 감동이야. 나 이제 숨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나 힘낼 거야. 생각해 보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썼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일하다가 읽었는데 진심이 전해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학교폭력 사건 후 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던 모습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괜찮다고 받아들여 가는 중이다. 별이 아버지도 별이가 조금씩 상처를 극복해 가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녀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면서 자녀의 회복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별이네 가족은 학교폭력 사건 이후 아파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가듯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어머니들이 겪은 내면적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서적 반응과 의미 형성의 과정을 드러냈다.

학교폭력 피해 어머니들의 삶의 의미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 가해자 또는 그 부모에 대한 분노, 전문가에 대한 실망감

은 이러한 정서적 외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은 2차 외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외상 속에서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상 사건과 고군분투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의 과정을 나타내었다. 삶의 의미는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박선영, 권석만, 2012). 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외상 후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1.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찾기

학교폭력 피해 어머니들은 자녀의 회복을 위한 삶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하늘이 어머니는 자녀 회복을 위해 사업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강한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위해 수많은 SNS를 뒤지고 많은 곳에 도움 요청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현장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바람이 어머니는 자녀의 일상을 보호하는 작은 영역에서 시작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말은 바람이 어머니에게 개인적인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해 가게 되었다.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기독교인인 자기 경험이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경을 확장하였다. 별이 어머니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놓쳤던 것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다. 별이 어머니는 이제 자녀를 온전히 소중히 존재 자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상담영역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상담자, 경찰,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삶을 공개하였다.

2. 그래도 성장으로 나아감

학교폭력 피해 어머니들은 자녀의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돌봄과 자기 이해를 하였다. 하늘이 어머니의 가족 집단에서의 적극성은 자녀의 변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늘이 어머니는 가해자와 그 부모를 문제의 중심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적용하게 되었다. 상담 경험은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녀에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바람이 어머니는 학교폭력이라는 고난 속에서 양육

방식을 성찰하였다. 양육 상담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도록 이끌었다. 기도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낮아져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불안을 극복하는 내적 자원이 되었으며, 자신의 문제에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삶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였다. 별이 어머니에게 교회프로그램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성령 체험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였다. 안정감을 가지게 된 별이 어머니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가해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 또한 부모 상담은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과정이 되었다. 본 연구참여자인 어머니들은 고통 속에서 신앙적인 경험과 상담의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 자기수용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다.

3. 버팀목이 된 지지자원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런 무너짐 속에서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들은 무너진 피해자 가족을 다시 세우는 중심축이 되어주었다. 하늘이 어머니 주변의 위클래스 상담교사와 학교폭력 가족협의회 교사들, 들어주고 대신 화내주는 지인들, 가해자의 감정을 외재화하도록 도와준 한국폭력 예방연구소 소장, 법률과 회복프로그램으로 도와준 푸른나무재단, 실질적 도움을 준 행정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하늘이 어머니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바람이 어머니는 교과 담당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권유, 고소하라는 경찰의 권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자녀 이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이라는 마음으로 변화하였다.

별이 어머니는 위클래스 상담교사의 도움과 주변 지인들의 위로와 교회 전도사님의 기도와 지지가 도움이 되었다. 외상의 고통은 신앙을 갖고 있는 외상자들에게 종교적, 영적 의미를 찾게 만드는 등 유익을 주기도 한다(윤덕규, 2011). 교회 인카운터 프로그램을 통해 별이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별이 어머니가 소지역의 인간관계에 의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내려진 부당한 결정으로 지역 내 관계에서 멀어져갈 때 도움이 된 것은 교회였다.

4. 치유와 성장의 가족공동체

가족 회복력은 가족 구성원의 신념, 조직 방식, 소통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Walsh,

2002). 이를 통해 가족은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힘을 키운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하늘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하늘이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먼저 감정을 표현하고 아버지도 그것을 받아주고 베풀어주었다. 하늘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너지지 않고 베풀어준 자녀에게 안정감으로 작용하였다. 이 가운데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가족 전체의 회복을 촉진하였다.

바람이 가족은 바람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자녀와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다. 바람이 어머니는 바람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자녀를 양육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또 자녀가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힘을 키우도록 자녀를 믿고 기다리게 되었다. 바람이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 부모의 방패막에서 안전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건 이후 별이 아버지는 자녀의 감정 표현을 더 받아주었으며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자녀의 말을 기다려 주었다. 별이도 가정에서 아버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와 분화해 가는 법을 배워서 일상의 다른 삶에도 확장해 가고 있다. 별이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 모두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 가족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따뜻한 관계로 유대감이 높아졌다. 연구참여자들과 그 가족들은 가족 안에서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그 변화의 전체 삶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III. 닫는 글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해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해 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에 맞는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고 내러티브 탐구로 삶의 이야기와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 이야기는 ‘칭찬받던 아이, 무너진 신뢰’, ‘삭일 수 없는 고통’, ‘무너지지 않기 위한 버팀’, ‘사무치는 감사의 동아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 ‘서툰 엄마의 미안함’, ‘불안의 한복판’, ‘공포와 싸우느라 방치된 몸’, ‘마지막 기댈 언덕’, ‘천천히 단단해지는 중’, ‘믿었던 곳이 가장 아플 때’,

‘뒤틀린 진실 파헤치기’, ‘엄마의 고요한 무너짐’, ‘소중한 동행’, ‘비 온 뒤 굳어가는 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삶의 의미는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 찾기’, ‘그래도 성장으로 나아감’, ‘버팀목이 된 지지자원들’, ‘치유와 성장의 가족공동체’로 형성되었다.

이 경험과 의미들에 관하여 통합적인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고통의 동반자였다. 연구참여자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간접적 외상을 경험할 뿐 아니라 사건 해결 과정 가운데 2차 피해자로 직접적인 외상을 경험하였다. 여기에 자녀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해결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울과 감정 마비, 수면장애, 장기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질병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경험하는 사건 충격의 정도는 부모가 경험하는 사건 충격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해 학생의 부모 중 상당수가 우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부모 역시 PTSD 유사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고(장혁진, 광영숙, 2014)한 선행연구와도 부합한다.

둘째 진흙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밧줄 하나로 구한다면 구해내다가 밧줄이 약하면 끊어질 수 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의 성경 말씀처럼 학교폭력 피해 어머니들 주변에는 도움의 공동체, 지인, 상담자, 경찰, 교사, 교회 전도사, 교회프로그램 등 도움의 환경이 있었다. 비기독교인은 주로 SNS와 지인을 통한 도움의 환경을 받았으나,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는 교회의 자원을 통한 도움의 환경이 제공되었다. 도움의 환경은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의 삶이 회복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기독교인인 하늘이 어머니는 SNS를 통해 스스로 도움의 환경을 찾기 위해 매일 노력하였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개인의 몫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안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부모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지지 모임, 상담, 예배, 기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외상을 가한 대상에 대한 미움과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은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와 슬픔가운데 나오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말한다. 다윗이 쓴 시편에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Mark P. Cosgrove(1995)는 고통 중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였다.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공의

를 이루시리라는 믿음 때문이다(송경아, 2021; 한현희, 2020).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주변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위로를 얻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지속되었다. 반면, 별이 어머니와 바람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쏟아내며 내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바람이 어머니는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고통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하였고, 이를 통해 회복의 힘을 얻었다. 별이 어머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미움 대신 긍휼과 수용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외상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종교적 활동을 한다(Meisenhelder & Marcum, 2009)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신앙적 의미 재구성을 통해 회복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영적·심리적 지원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이라는 위기는 어머니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자기와 마주하는 자기 이해와 자기수용의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가운데 비난하던 자신을 멈추고 자기수용을 하게 되었다. 또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도 회복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였다. 비기독교인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그쳤으나,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며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며, 고통받는 자들의 외상은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짐의 장소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Voskamp, 2017). 바람이 어머니는 기도 가운데 자신이 낮은 사람으로 서야함을 깨달았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게 되었다. 별이 어머니는 교회의 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미해결된 과제와 내면의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재회하게 되었다.

다섯째, 상담을 통해 양가적 경험을 하였다. 상담이 오히려 2차 가해가 되어 힘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좋은 상담자와의 만남은 자녀 양육의 방향성을 알게 되고, 자녀와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상담은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해결 방법을 배워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 상담자들이 상담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의 상담에서는 자녀들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담에서 그들의 최선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외상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인생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Calhoun과 Tedeschi (1995)는 외상의 강도가 클수록 개인의 삶에 영적이며 실존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램을 표현하였다. 하늘이 어머니가 먼저 연구자에게 전화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였고, 별이 어머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바람이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간증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 성장의 시점에서 타인을 돌보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의의 및 제언

연구참여자인 학교폭력 피해 어머니들은 학교폭력의 '주요 피해자'이면서 '회복의 주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회복을 위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과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한 내러티브탐구를 시도하였다.

첫째, 외상의 직면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동반하여 대인 외상 경험자들에게 과각성, 해리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Gingrich, 2013; Herman, 2012; Kim, 2016)는 것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지원은 파편화되어 있어 가족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사건 해결 과정에서 재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늘 어머니는 정보를 찾아 헤매고 복잡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 또 같은 사건의 같은 내용인데도 별이 어머니의 보고서와 전문가의 보고서의 차이로 결정이 반복되는 과정도 볼 수 있었다. 이에 통합적인 학교폭력 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제척되지 않는 현실은, 심의위원자격의 윤리적 이슈 및 학교폭력 사건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 교육 및 윤리적 감독의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교사, 상담사,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이해 및 기반 교육을 통해 공감적 의사소통 기술과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지향함으로써 이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자와 기독교 돌봄 사역자들에게 대인 외상 경험자와 안정되고 신뢰하는 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대인 외상 경험자들은 외상으로 인해 수치심과 죄책

감, 자기 비난, 낮은 자존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외상 사건으로 인해 세상과 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이 안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상담자와 돌봄의 기독교 사역자들은 안정감으로 피해자의 불안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들의 고통을 수용하며 하나님께로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억압된 정서가 풀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기독교 상담자와 기독교 돌봄 사역자는 분노와 억압된 감정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윗이 원통함을 토로한 시편을 함께 읽거나 다양한 상담기법으로 고통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또는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회복을 돕는 것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족의 통합 프로그램 안에서 가족 회복이 일어나면 이것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는 선순환 역할이 되어졌다. 또 연구참여자가 교회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인식의 변화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피해자 가족 전체와 피해자 부모에게 기독교인이기에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내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를 마치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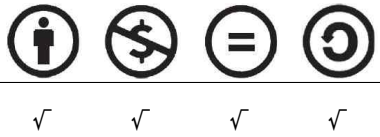
첫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중 어머니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었기에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가족상담 관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의 가족 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될 것이다. 둘째, 도시, 소도시, 농어촌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 연구를 제언한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맞춤형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이는 피해자 보호자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신뢰하고 더 나아가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이후 짧은 회복 기간 피해자 어머니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므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피해자 어머니의 연구와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기독교적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후 실시 한 결과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교회와 기독교 상담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섯째, 본 연구는 기독교인 두 명과 비기독교인 한 명을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탐구로 진행되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일반화 가능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질적 비교연구로 확장되기를 제언한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9월 29일

•논문 수정일: 2025년 11월 04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0일



【참고문헌】

- 강경미 (2011). 청소년 학교폭력의 예방과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16, 64-92.
<http://dx.doi.org/10.17841/jocag.2011.16..64>
- 김미경 (2011). 외상후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이야기. **신앙과 학문**, 16(4), 7-31. <https://doi.org/10.30806/fs.16.4.201112.7>
- 김미경 (2018). 애착외상의 이해와 기독교 상담적 함의, **복음과 상담**, 6(2), 31-58.
<https://doi.org/10.17841/jocag.2018.26.2.31>
- 문용선 (2018).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정상담학연구**, 3(1), 95-117.
- 박선영, 권석만(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 방기연 (2014).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학교폭력 피해 극복 학생 어머니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403-428. <https://doi.org/10.16983/kjsp.2014.11.2.403>
- 서정기 (2012). 학교폭력 이후 해결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3), 133-164. <https://doi.org/10.17318/jae.2012.15.3.005>
- 송경아 (2021). 기독교 용서상담에서 피해자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저주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59, 240-270. <https://doi.org/10.25309/kept.2021.5.15.240>
- 유재덕 (2013).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와 기독교적 대안. **기독교교육논총**, 34, 225-257. <https://doi.org/10.17968/jcek.2013..34.009>
- 이정관 (201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의 필요성 연구. **신학과 실천**, 393-416. <https://doi.org/10.14387/jkspth.2017.54.393>
- 장혁진, 곽영숙 (2014).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의 정신의학적 문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 의학교실**, 25(4), 224-229. <https://doi.org/10.5765/jkacap.2014.25.4.224>
- 정윤경, 김수경 (2014).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초등학생 어머니의 학교폭력 피해 처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치료연구**, 6(1), 43-63.
- 정현주 (2014). 학교폭력 가/피해 부모교육 참여경험의 이해.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

- 구소, 62(1), 199-233. <https://doi.org/10.25152/ser.2014.62.1.199>
- 조귀정 (2015). 학교폭력 피해 여중생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귀정, 반신환 (2014).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단일사례 연구. **기독교문화연구**, 19, 173-202.
- 조인효 (2014). 십자가의 요한이 본 영적 성장에서의 고난의 의미: 목회상담학적 고찰. **복음과 상담**, 22(2), 340-370. <https://doi.org/10.17841/jocag.2014.22.2.340>
- 최승미, 안창일 (2007). 근육병 환아 어머니의 외상후성장 및 삶의 질, 스트레스 대처.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6-257.
- 푸른나무재단(2023). **2023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서**. 서울: 푸른나무재단.
- 푸른나무재단(2024). **2024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서**. 서울: 푸른나무재단.
- 홍영숙 (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홍지영, 유정이 (2013).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1), 107-145. <https://doi.org/10.35151/kyci.2013.21.1.005>
- 한현희 (2020).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복음과 상담**, 28(2), 195-222. <http://doi.org/10.17841/jocag.2020.28.2.195>
- Armour, M. (2003). Meaning making in the aftermath of homicide. *Death Studies*, 27(6), 519-540. <https://doi.org/10.1080/07481180302884>
- Bonanno, G. A., Papa, A., Lalande, K., Westphal, M., & Coifman, K. (2004). The importance of being flexible. *Journal of Personality*, 72(6), 1261-1286. <https://doi.org/10.1111/j.0956-7976.2004.00705.x>
- Bradley, R., Schwartz, A. C., & Kaslow, N. J. (200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women with a histor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cop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685-696. <https://doi.org/10.1002/jts.20077>
- Brown, J. R., Aalsma, M. C., & Ott, M. A. (2013). The experiences of

- parents who report youth bullying victimization to school officia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 494-518. <https://doi.org/10.1177/0886260512455513>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pp.455-471. <https://doi.org/10.1007/bf02103658>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521-537. <https://doi.org/10.1023/a:1007745627077>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Author' reponse: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1), 93-102.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3
-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15). **외상 후 성장: 상담 및 심리상담 치료에의 적용** (강연신, 장유경, 박소연, 김현주, 조은혜 역,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탐구의 이해와 실천** (염지숙, 김민정, 박소연, 이수진 역,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 2013 출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ladinen, D. J., & F. Michael Connelly. (2016).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김민정, 박소연 역,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 2007 출판).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6). Narrative inquiry. In J. L. Green, G. Camilli, & P. Elmore (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 research* (pp. 477-487). New York: Routledge.
- Connors-Burrow, N. A., Johnson, D. L., Whiteside-Mansell, L., Mckelvey, L.,

- & Gargus, R. A. (2009). Adults matter: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negative impacts of bully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46*(7), 593-604. <https://doi.org/10.1002/pits.20400>
- Cosgrove, M. P. (1995). **분노와 적대감** (김만풍 역, *Counseling for anger*). 서울: 두란노. (원전 1988년 출판).
- Gingrich, H. D. (2013). *Restoring the shattered self: A Christian counselor's guide to complex trauma*. Downers Grove, IL: IVP.
- Hale, R., Fox, C. L., & Murray, M. (2017). As a parent you become a tiger: Parents talking about bullying at scho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2000-2015. <https://doi.org/10.1007/s10826-017-0710-z>
- Harcourt, S., Green, V. A., & Bowden, C. (2015). It is everyone's problem: Parents' experiences of bullying. *New Zealand Journal of Psychology, 44*(3), 4-17.
- Herman, J. (2012). **트라우마** (최현정 역, *Trauma and recovery*), 서울: 열린책들. (원전 1997년 출판).
- Joseph, S., Murphy, D., & Regel, S. (2012). An affective-cognitive processing model of post traumatic growth.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4), 316-325. <https://doi.org/10.1002/cpp.1798>
- Kim, K. B. (2016). *Embracing trauma in theodrama embodying Christiform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https://doi.org/10.1023/b:jots.0000014671.27856.7e>
- Luthar, S. S., Cicchetti, D., & Bech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https://doi.org/10.1111/1467-8624.00164>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 Psychological Inquiry*, 15(1), 41-4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2
- McMinn, M. R. (2011). **죄와 은혜** (전요섭, 박성은 역,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서울: CLC. 52-59. (원전 2008년 출판).
- Meisenhelder, J. B., & Marcum, J. P. (2009). Terrorism, post-traumatic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piritual outcom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8(1), 46-57. <https://doi.org/10.1007/s10943-008-9192-z>
- Mishna, F. (2004). A qualitative study of bully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Children & Schools*, 26(4), 234-247. <https://doi.org/10.1093/cs/26.4.234>
- Park, C. L., & Helgeson, V. S. (200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growth following highly stressful life events--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1. <https://doi.org/10.1037/0022-006x.74.5.791>
-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1), 13-19. <https://doi.org/10.1111/j.1556-6676.2012.00002.x>
- Sawyer, J. L., Mishna, F., Pepler, D., & Wiener, J. (2011). The missing voice: Parents' perspectives of 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10), 1795-1803.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1.05.010>
- Schaefer, J. A., & Moos, R. H. (1992). Life crises and personal growth. In B. N. Carpenter (Ed.), *Personal cop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149-170). Santa Barbara, CA: Praeger.
- Sullivan, K., Sullivan, G., & Cleary, M. (2003). *Bullying in secondary schools: What it looks like and how to manage it*. <https://doi.org/10.4135/9781446215296>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https://doi.org/10.4135/9781483326931>
- Tracy, S. R. (2009). **영혼을 만지다** (유희동 역, *Mending the soul*). 서울: 죠이션

교회. (원전 2005년 출판).

Tripp, P. D. (2016),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황규명 역,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서울: 디모데. (원전 2002년 출판).

Voskamp, A. (2017). **난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는다** (손현선 역, *The broken way*). 서울: 사랑플러스. (원전 2016년 출판).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2.00130.x>

Watlington, C. G., & Murphy, C. M. (2006). The roles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among African American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7), 837-857. <https://doi.org/10.1002/jclp.20268>

Witvliet, C. V., Phipps, K. A., Feldman, M. E., & Beckham, J. C. (2004). Posttraumatic mental and physical health correlates of forgiveness and religious coping in military vetera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3), 269-273. <https://doi.org/10.1023/b:jots.0000029270.47848.e5>

[Abstract]**A 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s of Mothers of Adolescents Victimized of School Violence****Yoo, Hea Gyeong* Kim, Mi Kyung****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stress experienced by mothers of adolescents who we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their effort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and the process of change and recovery they underwent. The participants were three mothers whose children had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ly 2024 to February 2025. The interview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Clandinin and Connelly's (2000)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model, focusing on temporality, place, and sociality.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others experienced both direct and indirect trauma while witnessing their children's suffering, leading to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Across the stages of victimization and recovery, they developed meanings such as "finding new meaning amidst pain," "moving toward growth despite challenges," "support resources as pillars of strength," and "a family community of healing and growth." Despite their struggles, the mothers achieved self-reflection and shifts in perception, growing as both "primary victims" and "agents of recovery."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multifaceted approaches to support mothers' recovery, integrated support systems for families affected by school violence, and faith-based counseling and recovery programs.

Key words: narrative inquiry, support resources, post-traumatic growth, school violence, victim mothers

* Mind Bridge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Director

** Seoul Hanyoung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 Associate Professor